北조불련 · 템플스테이… 응용불교 논문 '눈길'

동국대 2020년 상반기 불교 박사 논문은

불교 관련 박사 11명 배출
북한 · 경영 인접학문도 나와
조불련 관련 '첫' 박사 논문
템플스테이 경영학적 접근도
대행선사상 연구 지속 현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020년 상반기 박사학위자를 114명 배출했다. 이중 불교 관련 박사는 11명이다. 상반기 박사학위 논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 불교학이 아닌 인접학문인 북한학, 경영학에서 불교 연구를 통해 박사가 배출된 점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조선불교도연맹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은 법타 스님이 최초다.

법타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 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을 비롯해 조선불교도연맹 역사와 조직체계, 문중, 법계, 신도조직, 사찰, 주요인물 등 망라한 북한불교 종합 연구물이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태동은 1946년 12월 26일 북조선불교도총연맹(1972년에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개칭) 결성 당시 상무위원으로 사회주의 승려 대부분이 취임해 북한 불교계를 이끌면서부터다. 실제 한국전쟁 이전 사회주의 성향의 승려 56명이 월북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종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단체조직으로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6국의 지도를 받으며, 또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6국에 속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서기국에서 각 업무를 조율해 시행한다. 별도 기구로는 승려 대상 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이 있고, 법계자격고시위원회가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남한을 포함한 제3국과의 종교 교류와 북한 불교 정체성 유지, 사찰 관리 등이다.

법타 스님은 "이제 종교를 북한 사회의 한 부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스님은 동국대 경영학과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요인이 즐거움과 평안함, 그리고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불교나 관광학에서 학위논문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경영학에서 박사 연구가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다.

하원 스님은 참가자 간의 대인관계, 스님과의 관계, 일탈적 체험 등의 템플스테이 체험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체험요인이 즐거움, 평안함 등의 감정과 재방문 의도 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체험경제이론과 서비스마케팅의 관점에서 규명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요인 중 일탈적 체험이 즐거움과 평안함,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된 부분은 눈길을 끈다. 하원 스님은 "현대인들은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의 휴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수행자의 일상과 불교문화, 전통문화 등의 일탈적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재방문 의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일탈적 체험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 운영주체는 즐거움이나 평안함, 동반유형, 연령, 사찰 위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타겟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의 선사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상반기에도 나온 점도 눈길을 끈다. 김용환 씨는 '일심법의 관점에서 본 대행 선사상 연구' 로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환 씨는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 속에 나타난 선리(禪理)를 규명하고 일심법의 관점에서 달마와 동산법문, 남종선과 북종선, 마조와 석두계의 선에 이르는 동아시아 선불교를 재조명했다. 나아가 저자는 대행선을 통해 일심법의 현대적 전개에 대해서도 살폈다.

김용환 씨는 "대행 선사가 말하는 둘 아닌 한마음은 무시무종의 일승공법으로 평등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불성임과 동시에 평등공법인 것"이라며 "이는 원효로부터 융합된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이 한마음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개념에 대해서는 "중국선불교의 핵심 개념인 주인공(主人公)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대행 선사는 전통적 의미의 주인공(主人公)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주인공(主人空)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원효가 말하는 일심의 대체대용을 '한마음' 의 체와 용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존 취약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 체계화

문화재청, 관련 규정 시행
사찰 벽화 5300여점 파악
보존 · 관리 사항 종합 규정
직접 개입 최소화 등 명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던 사찰과 궁궐, 사원 등 건조물 벽화의 보존 ·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제정 ·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 을 제정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 궁궐 · 서원 · 향교 · 사당 등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 · 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 등 12건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벽화문화재가 목조 건조물 내 · 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져 건조물이 노후될 경우 손상되는 경우 많았다. 보수과정에서도 건조물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돼 쉽게 분리되는 등 제대로 보존 · 관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 · 시행되는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에 대한 규정' 은 벽화문화재에 대한 규정부터 보존 원칙, 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 총 4장으로 구성된 규정에는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을 비롯해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 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극히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벽화문화재가 본래 위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규정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와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 지금까지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 · 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민 기자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된다

문화재청 첫 시행… 2월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랫동안 전승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 · 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 · 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문화 강연회

3월 13일부터 12주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안성두)이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에서 총 12회에 걸쳐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불교는 어떻게 아시아의 등불이 되었는가'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각 분야 전문 학자들이 참여해 불교와 관련된 문학, 미술, 윤리, 명상, 사회참여, 신화 등과 관련된 강연을 펼친다. 주요 강사로는 이주형 서울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 교수, 심재관 상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회비는 없으며 3월 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